

『조선영화』 1991년 총평

1991년 <조선영화>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. 전반기는 남북 통일관련 글이 눈에 띄었고, 후반기에는 90년에 이어 ‘우리식’ 영화창조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.

‘력사의 고발, 분노의 웨침-남조선영화 <오, 꿈의 나라>를 중심으로’(1월호), ‘통일의 열망 속에 진행된 <북남뉴욕영화제>(오진홍, 2월호), ‘조국통일주체의 영화를 많이 창작하여 형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’(5월호) 등에서 남한, 통일, 영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. <오, 꿈의 나라>나 <북남뉴욕영화제>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를 보면 이들이 남한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 수 있다. 이들은 먼저 계급사회에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반동적인 문학예술과 대중의 생활과 지향을 반영하는 진보적 문학예술이 있다고 논한다. 그런 다음 남한은 계급사회이며 따라서 당연히 남한의 문학예술 또한 반동적/진보적 문학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에 남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중 <오, 꿈의 나라>, <파랑새>, <그날이 오면>, <파업전야>, <부활의 노래> 등이 남한의 대표적인 진보영화라고 소개하고 있다(이하 ‘력사의 고발’ 기사). 당시 남한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독립영화를 북한은 진보영화로 소개하고 있다. 2월호에는 90년 10월 10~14일간 뉴욕에서 열린 남북뉴욕영화제를 소개하고 있는 데 이 기사에는 남북한영화를 비교한 뉴욕판 한국일보(90년 10월 17일자)의 ‘남북의 영화-계몽물과 오락물로서의 상반성’을 인용해 실었다. 기사에는 남한영화는 상업성외에 감동이나 목적설정의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채 현실의 측면만을 보여주고 상황전개에 초점을 맞추는 오락물이 대부분이며, 북한의 영화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계몽물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. 또한 5월호에는 ‘하나의 민족, 하나의 국가, 두 개 제도,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방식’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조국통일주체의 영화창작을 해나가자는 내용의 글이 실려있다(5월호, ‘조국통일주체’, 38~40쪽).

한편 후반기로 가면 전년도에 이어 ‘우리식’ 영화창조를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다. 영화촬영소의 독립채산제를 옹호하는 ‘영화촬영소 독립채산제실시의 중요방도로서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’(5월호, 41-43쪽)와 ‘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영화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’(12월호, 23~26쪽)가 실려있어 1990년대 초기에 일어났던 영화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. <조선영화>후반부의 주된 주제로 꼽을 수 있는 ‘우리식’ 영화창조는 ‘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영화예술발전의 근본담보’(8월호, 26~28쪽), ‘영화에서 민족적특성을 돋구기 위한 연출형상탐구’(9월호, 37~41쪽), ‘원대한 포부, 고상한 리상이 화면에 넘치도록’(12월호, 27~31쪽), ‘민족적성격을 잘 그리는 것은 영화를 우리 식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요구’(12월호, 35~37쪽)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. 특히 91년 말로 가면 우리식 사회주의 혹은 민족제일주의와 같은 자민족중심(우월)주의적 용어가 청년교양주체 영화를 관통하고 있다.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북한이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세대(‘혁명 3, 4세대’)에게 항일혁명투쟁 등 김일성 유일사상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와 그로부터 가공된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을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새로운 ‘인민대중’인 청년세대가 ‘생활적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사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신념을 만들 수 있는’(12월호, 27~31쪽) 영화를 주문하는데에서 지배, 통치, 통합의 강력한 효과와 드라이브를 야기했던 60~70년대 영화가 부활하길 북한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김선아